

정기간행물 등록 16호 Vol.38

등록번호 : 경기000707 등록일자 : 2006년 8월 7일
발행일 : 2009. 6. 1 2면 : 격월간 발행처 : 박공민
편집인 : 박공민 발행처 : 우리네
발행소 : 경기도 이천시 도가면 송곡리 696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도가면 송곡리 696
TEL.031634-0326-8 FAX.031634-7091



CONTENTS

우리꽃, 이제 세계의 하늘을 본다 2	1
현장 가이드	2 13
품종 갤러리	4 15
리더스 초이스	6
포토 스토리	7 19
품종 모커스	8 19



현장 가이드



가든 마켓 | 자재소개



신소재 관목소개



월드 리포트



우리꽃 따라잡기

광고



2008년 한평의 “세계나비, 곤충엑스포”시기의 한평들녘과 행사장 안은 온통 하얀색과 보라색 그리고 붉은색 광장으로 연출했다. 특히 2007년 경기도 파주의 제 1회 심학산 들꽃이꽃축제는 한국의 지역꽃축제의 방향을 완전 돌려놓는 계기로 작용했다.

2007년 70만명, 2008년 140만명 그리고 2009년 세상이 어수선하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7일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축제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축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중 많은 사람이 오고 서캐러는 유명한 문화관광지가 되었고 파주시는 이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를 20억원(간접 200억원/200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축제행사의 가장 큰 요인인 경관 조성의 비용은 겨우 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용은 일반 지자체의 유사한 규모의 비용으로 계산하면 10분의 1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 경남 함양의 100만 평방미터의 들녘을 온통 꽃의 물결로 뒤덮었다. 이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경관의 연출이었다.

물론 많은 숙제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극한가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한계 극복의 실패에 의한 개화시기의 지연, 그리고 축제의 기본 편의시설 및 운영의 문제 등에서 받은 낙제점 행사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그 경관만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었다. 지금도 그때 절정의 장면을 떠올리면 몸서리쳐 쳐지고 환호의 감동이 밀려온다. 이런 게 어느 고객이 평가해 준 ‘참조’가 아닐까? ‘우리꽃의 무서움’이 아닐까?

2009년의 함양은 분명 성공한 축제로 남을 것이다 이는 “무시운 사건”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제3의 함양축제의 태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봄꽃축제의 단골 메뉴인 유채꽃의 단순한 노란색에서 하양, 보라, 빨강, 분홍, 연두, 노랑, 파랑과 이를 혼합한 파스텔의 다양한 축제를 가능하게 한 것도 “우리꽃”의 성과이기도 하다.

어름만으로도 재배가 불가능했던 꽃양귀비를 적용하기 위한 자료 조사와 정무기판에 자료요청 및 사전준비를 끝내고 난 후 처음 꽃양귀비가 도심과 골짜기 그리고 식물원에 현장적용되어 꽃을 피웠을 때 세상에 난리가 난 줄 알았다. 사복을 입은 경찰이 사진 쫓고나 영장이 없어도 사법

장의 책상을 내리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이제 꽃양귀비는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흔한 식물이 되었다. 이제 일본에 가거나 혹은 유럽에 가거나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에 가지 않아도 그 열광적인 매혹에 빠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요즘, 우리꽃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귀비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초 개발의 노고로 이해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도 이따서 있다.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주도해온 10년이 이런 비전을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 할 충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십년간 성장해 온 ‘우리꽃’의 또다른 새로운 10년은 “세계적인 경쟁력의 품종개발”을 통한 세계시장의 선두기업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꽃이 개발한 좋은 품종들이 세계굴지의 회사와 계약 현지에서 시험 재배되고 있다.

2009년 드디어 중국시장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일조화선 자원유한공사(日照花仙子園藝有限公司)가 5월 1일 정식 오픈 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중국현지에서의 평가는 가히 과분하다할 만큼의 호평을 받았는데 단적으로 보도된 신문의 제목이 “산동에도 서화가 있다”(참고: 중국에서는 서화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경관으로 평가받는다)는 표현으로 한국에서 투자하고 조성한 ‘우리꽃’의 중국현지법인을 마음속으로 받아주었다.

내년 흑자로 전환하고 더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후 남부의 원단 그 다음 서부인 사천, 북부인 허베이성을 얻게 되면 중앙인 북경으로 입성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꽃’은 세계를 동양에서부터, 3만불 이상 소득자가 6억 만 명이 살고 있는, 유럽 전체 4억5천만명이 있는 시장보다 더 큰 동양의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최고가 될 것이다.

이제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작은 나라의 작은 회사가 지향해야 할 가장 큰 힘은 국경을 스스로 허물고 답을 넘어 세계로 가야 한다. IMF가 가르쳐준 ‘우물안 개구리’는 10년 전 너무도 아프게 깨달은 좋은 가르침이었고 사실 경쟁력이 되었다. 그래서 땅을 넘어야만 하고, 세계로 가야 하는 ‘우물안 개구리’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으로 출발하여 ‘우리꽃’의 다음 10년은 더 큰 세상에서 무한히 넓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될 것이다.

인천 남동구청

벽화수를 이용한 옹벽, 꽃벽, 꽃탑 녹화



인천시 교육청 옹벽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옹벽에 수직정원을 가능하게한 벽화수의 본격적인 착수가 인천교육청 옹벽에서 2009년 6월 9일 그 서막을 올렸다. 인천 남동구청 조경팀에서는 남동구에 있는 옹벽 녹화에 대해 고민을 해 오던 중 벽화수의 소개를 받고 "그래, 바로 벽화수다!"라는 인식을 갖고 인천 시청에 자료를 전달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인천교육청 옹벽이 기존 이미지와는 전혀 색다른 수직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인천교육청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역(인천시청역)5번출구이고 바로 건너편에는 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열전물이 인천시청으로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인천교육청 옹벽이 벽화수로 완공된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민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다. '교육청 옹벽이 이렇게 바뀔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이곳을 지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옹벽이 회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고 옹벽에서 꽃이 피어나고 말 그대로 국내 최초의 수직정원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벽화수에 이미 한달전 조세플, 무늬임주그라스 등 그라스를 주소재로 하고 상록잔디패랭이, 왜성아스타 등 꽃을 볼 수 있는 소재를 혼식함으로 색 전체적인 절감과 꽃을 볼 수 있도록 벽화수를 디자인하였다. 시공을 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교육청 옹벽 1차에 대한 평이 좋게 나타나자 바로 옆에 있는 옹벽도 작업을 착수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다. 2차 교육청 옹벽 또한 미리 식재를 해놓고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7월 9일 시작해서 7월 23일 최종 마무리가 되었다.



인천시 꽃벽, 꽃탑

벽화수로 꽃벽과 꽃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계기로 새롭게 입증되었다.

올 2월 인천을 방문했을 때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인천은 한창 분주해 보였다. 세계도시축전에 어울리게 도시전체를 새로 디자인하고 송도 도시축전현장은 전 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꽃탑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벽화수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바로 전했다. 2008년 한평국화축제에서 이미 꽃탑을 선보였던 터라, 꽃벽과 꽃탑은 큰 문제가 되지않았다. 몇 번의 제안을 남동구청에 제안한 후, 남동구청 조경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안이 확정되었으니 세부적으로 만나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장소는 남동 IC변과 하이웨이 교통섬이었다. 1달여간을 설계팀과 디자인팀을 가동해 우리는 구체적인 설계와 내역작업에 들어갔다.

6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월초에 남동IC 꽃벽과 하이웨이 교통섬 꽃탑 및 혼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꽃벽과 꽃탑은 효과를 보기위해 2주전에 미리 임파첸스(갈라 별)와 아스타를 벽화수 틀에 식재를 해놓았고, 설치후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꽃이 만발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올해 선보인 새로운 조정자재 씨티가든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량의 원터치형 화분으로 보도블럭 위, 교통섬, 옥상, 광장의 콘크리트 바닥 등에 놓고 뜯어 식물만 꽃으면 되는 신개념의 화분이다. 매우 간단한 개념의 화분시스템인 씨티가든을 남동구내 교통섬에 다양한 화색의 버베나를 식재, 설치하여 교통섬 경관조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직정원의 새 이름, 벽화수!!!

인천시의 가장 핵심인 인천시 교육청옹벽과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꽃벽, 꽃탑)가 벽화수의 새로운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칫거리인 옹벽, 그리고 호안변, 아파트 벽면녹화 등 앞으로 벽화수의 나아갈 길은 무궁무진하다.

벽면녹화, 아니 한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벽화수'를 수직정원의 새로운 이름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인터뷰

인천 남동구청 조경팀

1 벽면녹화인 벽화수를 인천교육청 옹벽에 적용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기존 담장이 이용하는 경우 동절기 낙엽 및 다양한 원인에 따른 지근부 절단으로 고사 발생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식생기반체를 부착하는 입면녹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신속한 전면 녹화를 위해 벽화수를 선택하였다.

2 인천교육청 옹벽에 벽화수를 조성하기 전과 조성 후의 반응은? 다수의 시민이 새로운 입면녹화 방식에 대하여 흥미로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3 벽화수를 옹벽에 적용할 때와 꽃벽, 꽃탑에 적용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형화된 디자인에는 벽화수의 적용이 용이하나, 부정형의 꽃탑과 꽃벽에는 다양한 시공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것이고 또한 수분에 취약한 인공식재기반이기 때문에 관수가 용이한 곳에는 시공이 적절하나 수분 공급이 용이치 않은 곳에는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벽화수의 함수 능력에 대하여 정확한 Data 필요할 듯 싶다.

4 앞으로 벽화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분 들게 조언할 내용이 있다면? 관수가 용이한 인공구조물에 적용은 가능하나 관수가 용이치 않은 곳에는 인력과 시간을 다량 투입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관수가 용이한 곳에 시공 검토를 바란다.

5 벽화수의 가능성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 현재 우리나라의 입면녹화는 걸음마 단계로 함수량 증대 및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적용 초화류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

왕아주가

Ajuga reptans 'Catlin's Giant'
꿀풀과, 🌞 🌑



줄기가 없이 잎은 뿌리에서 자라며 잎은 적갈색을 띄며 일 반 아주가에 비해 크고 광택이 난다. 꽃은 보라색으로 5~6 월에 피며 식물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느낄 수 있다. 지피 력이 빠르고 양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특히 음지 에서도 생육이 좋아 나무아래 군식하거나 다른 아주가 품 종과 혼합식재해도 좋다.

황금조팝

Spiraea japonica 'Gold Mound'
장미과, 🌞 🌑



밝은 황금색의 잎이 어긋나며 자라는 소관목으로 높이가 30~40cm 정도 자란다. 6~7월에 분홍색 꽃이 피고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 뿐만 아니라 웬만한 습기가 있는 곳에서 도 잘 자란다. 잎의 황금색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심는 것이 좋다. 군식, 라인, 포인트 어디 에도 잘 어울린다.

펜스테몬 상록홍염

Penstemon digitalis 'Husker Red'
현삼과, 🌞



키는 60~70cm정도까지 자라고 잎은 광택이 나는 붉은색 을 띄고 6~7월에 꽃대가 올라와 종모양의 하얀색 작은 꽃 이 방울방울 매달려 핀다. 어린 잎은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띄다가 커가면서 진홍색 으로 변하게 되지만 잎맥과 잎 뒷면은 계속해서 붉은 빛을 유지한다. 라인으로 열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여름의 하얀색 꽃과 사계 절 붉은 잎은 다른 식물과 어울려 포인트식물로 활용에 주 면 좋다. 번식은 종자를 파종하여 증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붉은잎동자꽃

Lychnis arkwrightii 'Vesuvius'
석죽과, 🌞 🌑



잎이 진한 붉은 색을 띄는 동자꽃으로 일반 동자꽃과 매 우 유사하지만 동자꽃에 비해 꽃이 진한 주황색이다. 키는 30~40cm정도 자라며 다화성이며 개화기는 6~9월이다. 생육은 매우 강건하며 약간의 물빠짐이 좋은 사질의 비옥 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양지 뿐 아니라 반음지에서서도 생육이 좋아 화염수의 가장자리에 식재하여 감상 할 수 있다.

한꽃조팝

Spiraea japonica 'Alba'
장미과, 🌞 🌑



키가 다지않을 때 60~80cm정도 자라고 꽃은 6~7월에 줄 기 끝에 여러개의 수많은 꽃이 한꺼번에 우산처럼 피어나 덩굴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하양의 꽃을 피우는데 간혹 문 홍의 꽃이 섞어나오기도 한다. 잎이 조밀하고 꽃이 오래피어 라인을 형성하여 군식하거나 대형 공원들의 보행로 주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에 적용 가능하고 돌메지용으로도 유망한 소재이다. 깨끗한 꽃을 계속해서 감상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 지고 난 꼬투리를 잘 라 주는 것이 좋다.

호피무늬억새

Miscanthus sinensis 'Zebrinus'
화본과, 🌞



잎의 무늬가 가로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억새에 비해 잎이 짧아 곧추서는 형태를 가지며 쓰러짐이 적다. 높이는 1.5~2m 정도 자라며, 뿌리에서 여러 대가 곧게 자라는 대형의 초본 식물이다. 햇빛이 잘 들며, 배수 가 잘 되는 비옥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란다.

적엽좁쌀풀

Lysimachia punctata 'Firecracker'
앵초과, 🌞 🌑 🌧️



어린 새싹때부터 다 자랄때까지 잎에서부터 줄기까지 적갈 색을 띄고 꽃은 6~7월경 노란색으로 핀다. 키는 70~80cm정도 자라고 수변에 적용 가능한 식물로 수변의 포 인트식물로 적용해도 되고 특히 황금잎좁쌀풀과 구분하여 식재하면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색깔이 좋아 군락을 지어 식재해도 좋다. 양지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 도 생육이 가능하다.

속근사루비아 비올라

Salvia nemorosa 'Viola Klose'
꿀풀과, 🌞



진한 보라색의 꽃을 피우며 5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 개화한 다. 1차 개화 후 컷팅을 해 주면 2차 개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다. 키는 40cm까지 자라며 잎에는 향기가 있어 허브식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독식재 혹은 혼합식재시 좋은 소재로 이용될 수 있다.

무늬창포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Variegatus'
천남성과, 🌞 🌧️



키는 70~80cm정도 자라고 잎은 곧게 뻗으며 자라며 선명하게 무늬가 있고 향기가 좋다. 줄기는 땅의 표면을 기듯이 자라고 생장이 매우 빠른 식물이다. 주로 낮은 물속, 혹은 물가에서 생육을 한 다. 생장이나 증식이 매우 빠르고 물의 정화능력도 뛰 어나,다. 수중식물로 연못주변, 수로, 습기가 많은 정원 등에 적용 가능하고 생육은 수심 30cm이내가 적당하다.

아스타 발라드

Aster novi-belgii 'Marie Ballard'
국화과, 🌞



키가 크게 자라는 아스타 고성종으로 80cm정도 자란다. 다 화성의 꽃은 보라색으로 피며 10~11월경 꽃을 피운다. 가을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피식물로 생육이 빠르고 생태적 으로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혼합식재시 뒤쪽에 심는 것 이 유리하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육이 좋다. 봄에 삽목, 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근해바라기

Helianthus helianthoides 'Golden Sun'
국화과, 🌞



꽃은 7월에서 10월까지 직경 7~10cm정도의 노란꽃을 피 운다. 키가 작은 해바라기로 100~120cm정도 자라고 생명 력이 강하고 땅속줄기를 뻗어 번식한다. 토양은 건조지나 습지를 가리지는 않지만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 호한다. 도로가에 열식하거나 대면적에 대형군락을 이루어 심고 다른 종류와 혼합하거나 특히 볼식물과 혼성하여 심 으면 효과적이다.

홍띠

Imperata cylindrica 'Red Baron'
화본과, 🌞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붉은 잎을 가지고 있고 25~30cm 정도 자란다. 가을로 가면서 잎은 더 붉어진다. 근경으로 번식하며 생육이 강하여 특별한 관리 없이도 매우 잘 자 란다. 핵심 포인트를 주거나 군식, 열식 모두 다 잘 어울린 다. 특히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적색의 잎을 가지고 있다. 다른 그라스와 혼식하면 좋다.

노란줄무늬세덤

Sedum kamtschaticum 'Variegatum'
돌나물과, 🌞 ☪️



잎의 테두리에 무늬가 들어있는 세덤으로 6~7월에 노란색 꽃을 피운다. 포복형으로 지피력이 강하고 생육형태가 좋아 단독식재 해도 감상 가치가 좋다. 다른 세덤류와 마찬가지로 건조에 는 강하지만 습기에는 약하다. 배수가 좋은 곳으로 선택 하여 식재해야 여름 장마철에 잎이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옥상조경, AR가든에 앞쪽식물로 군식하거나 라인을 주면 좋다.

무늬인동

Lonicera japonica 'Aureoreticulata'
인동과, 🌞 🌑 🌧️



대표적인 덩굴성 식물로 연맥을 따라 노란 줄무늬가 부정 형으로 형성된다. 일반 인동과 마찬가지로 6~7월에 피는 하얀색 꽃은 시간 이 지나면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된다. 생장이 빠르며 펜스나 트렐리스를 이용하여 생육을 유도하 면 좋은 경관을 연출 할 수 있다. 다른 인동 품종과 번갈아 식재해도 좋다.

왜성모나다

Monarda didyma 'Pink Supreme'
꿀풀과, 🌞



키가 50~60cm 자라는 왜성종. 꽃은 가장 빨간색에 가까 운 진분홍색의 화려한 꽃이 피며 잎의 향기가 뛰어나다.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개화하며 생육이 강건하여 화단, 도로용 지피식물로 좋다. 허브에서는 벨가뭇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허브원을 조성할 때 꽃과 잎의 향기가 좋아 빠질 수 없는 필수품목이다. 번식은 봄, 가을에 삽목하여 증식한다.



시원한 느낌의 순백의 꼬리풀 꼬리풀 화이트

넓은 면적에 군식하거나 도로가, 화단에 열식해도 좋다!

그동안 꼬리풀 품종은 다양하게 소개되어왔다. 화색과 초장에 따라서 6가지 품종(리틀블루, 나나, 이브, 블루, 로켓, 핑크)을 선보여 왔고 현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품종은 꽃이 하얗게 피는 품종으로 기존 품종과 더불어 현장에 잘 적응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품종이다.

키는 30~40cm 정도이고 양지 및 반음지에서도 잘 적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반그늘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여 적용폭이 넓고 생육이 매우 강건하고 간혹 진딧물이 끼는 경우는 있는데 그 외에는 병해충에도 매우 강하다.

꽃은 6~7월경에 피는데 이 시기에 흰색으로 피는 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단조성시 화색을 안배할 경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꽃대가 많아 넓은 면적에 군식을 하면 꽃방석을 깔아놓은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빈틈없는 경관을 만들고 촛불형의 식물품이 매우 아름다워 도로가 화단에 단독식재하거나 다른 꼬리풀 품종과 함께 식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번식은 봄, 가을로 삼목을 통해서 증식하는 것이 유리하고 1차개화후 커팅해주면 9월경 다시 꽃이 핀다. 커팅후 시비를 충분히 해주면 가을에 더욱더 풍성한 꽃물결을 볼 수 있다.

음지의 새로운 리더 상록양지꽃

최고의 기능성을 갖춘 신소재

올해 새롭게 선보인 품종 중에서 단연 질문을 많이 받고 관심을 끌고 있는 품목이 바로 상록양지꽃이다.

그 이유는 조경소재로서의 뛰어난 기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음지쪽에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이 극히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 음지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상록성의 식물이라는 희소 가치가 있다. 그리고 4~5월경 봄에 노란색 꽃을 피우고 진녹색의 잎은 광택이 있어 절감이 뛰어나 일 자체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생육자체도 매우 강건하고 특히 런너형으로 매우 빠르게 피복하므로 지피력 또한 뛰어나다.

도심속의 가로수 아래, 골짜기, 식물원 등의 음지 구역에 호스타류, 수호초, 백문동, 대사초류 등과 혼식하거나 군식하여도 좋고 음지 뿐만 아니라 양지쪽에서도 잘 자란다. 락가든 조성시 돌 주변에 식재하면 자연스럽게 돌을 감싸 안으며 자라 돌과도 잘 어울린다. 봄에 음지쪽에서 꽃을 보기 힘들게 화려해진 않지만 은은한 노란색 꽃 또한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다. 병해충에도 강하고 생육이 까다롭지 않고 강건하여 특별한 관리의 필요 없고 혹 장마후에 잎이 갈변되면 바로 잎을 제거해주면 새순이 깔끔하게 나오게 된다.

생태적, 형태적으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로써 앞으로 많은 현장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벽화수로 새롭게 태어난 신답지하차도 동대문 꽃탑



“동대문구에서는 신답지하차도 상단부 유휴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양쪽 구조물 벽면을 활용하여 동대문 형상의 꽃탑을 설치하고 지하차도 벽면에는 플랜트박스를 설치하고 초화류를 식재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딱딱하고 삭막한 장소를 밝고 아름다운 랜드 마크로 조성하여 2006. 7. 6일 준공하였다.”

(2006-07-13 연합뉴스)

신답지하차도 꽃탑이 설치된 지 만 3년이 지났다. 처음 설치할 때의 의도는 매우 좋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1년에 3~4차례 플랜트박스의 초화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정에서는 매년 예산을 들여 초화를 교체한다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 아니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우리꽃의 ‘벽화수’, 벽화수에 적용하는 다년생 식물을 이용하여 매년 초화를 교체할 필요 없이 1회 설치로 매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동대문 꽃

탑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벽화수의 설치과정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를 동대문 꽃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① 먼저 벽화수를 고정한 수 있게 틀을 설치해야 한다. ② 동대문 꽃탑의 경우에는 보수력을 높이고 토심을 깊게 만들기 위해 계단형식의 플랜트박스에 상토를 채워 넣었다. ③ 다음 벽화수 매트를 부착한다. 사선이 들어간 검은 매트를 커팅 하여 부착한다. 그리고 관수라인을 설치한다. ④ 25mm 메인 관수라인에서 13mm로 꽃탑의 네 모서리로 나누어지고 벽화수에 직접적으로 물을 주는 점적관수라인은 8mm이다. 수직 벽면의 경우 자동관수라인을 안쪽에 설치하여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면의 경우 위쪽에 설치에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있다. ⑤ 다음으로 무늬를 그려 넣고 식물을 식재한다. ⑥ 동대문 꽃탑에 들어간 식물의 종류는 바탕으로 아스

타 춘추와 꽃잔디 레드킹, 무늬로는 전면부에는 무늬 피막이와 황금줄사철을 사용해 노란색 무늬, 후면부에는 상록반디패랭이를 식재해 빨간색 무늬를 표현했다. 상단부에는 비교적 높게 자라는 노랑속근코스모스를 식재했다.

4월 18일 식재를 완료했을 때에는 과연이제 얼마나 빨리 자랄까 우려했었다. 구정의 담당자도 언제쯤 퍼지냐며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난다. 식재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스타와 꽃잔디는 어느 정도 퍼졌고 무늬피막이와 황금줄사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⑦ 식재 후 두 달째 방문했을 때에는 거의 모든 식물들이 많이 자라 꽃탑을 뒤덮고 있었다. 두 달만에 전체가 녹화가 되었고 8월초쯤이면 아스타의 진분홍색의 꽃이 활짝 피어 새로운 모습의 꽃탑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가을 햇살

억새



억새는 화분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우리나라의 전지역과 일본·중국 등지의 산과 들에서 분포한다. 억새는 산이나 물에서 자라나 물가에서 자라는 물억새도 있다. 억새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식물이며 왕성한 생명력으로 전국적으로 대군락을 이루며 장관을 펼치는 곳이 많다. 억새는 보통 우리나라 중북부의 경우 억새가 2m이상 자라며 남부지방의 경우 억새의 키가 어른의 허리정도로 작다.

억새 잎은 매우 억세고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잔톱니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손을 베일 수 있으므로 억새를 만질 때 조심해야 한다. 억새는 잎이나 꽃에 따라 참억새, 가는잎억새, 물억새, 금억새 등으로 구분한다. 이중 가장 흔한 것이 참억새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지역에 주로 자라는 억새는 또한 유럽이나 북미의 대부분의 정원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인사이기도 하다. 이

미 160여 종류의 품종들을 선발해가며 그 멋을 찬탄하고 있다.

억새의 뿌리는 약으로도 사용되며 이뇨작용과 해열에 좋다. 또한 억새는 뿌리가 강건하고 건조에도 강해 훼손지 복구용으로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억새의 줄기와 잎은 가축사료로 쓰거나 지붕을 잇는 데 쓴다.

억새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늦어도 오후 서너시에 억새밭에 들어와 있어야 하며 이 때 은색이던 억새는 두세 시간 후 해지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온통 황금색으로 변한다. 억새의 절정시기는 단풍의 절정시기보다 보통 일주일 정도 빠르므로 시기를 잘못하면 억새와 단풍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속명인 Miscanthus는 그리스 어원의 'mikos'와 'anthos'의 합성어로 각각 줄기(a stem)와 꽃(a flower)를 의미하며 소화시와 같은 소수(작은 이삭, spikelet)에 자루가 발달해 있음을 가리킨다.

현장에서의 적용



① 군식
억새류는 품종에 따라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대면적에 큰 무리를 지어 식재하는 것이 좋은 경관을 연출하는데 유리하다.



② 열식
라인을 주거나 생울타리용으로 적용할 때 열식을 하면 좋다.



단독 식재
좋은 품을 형성하는 억새품종은 정원의 핵심이 되는 곳에 일정한 리듬을 주며 포인트로 식재를 하면 좋다.

품종소개



억새 극단라이트
매우 조밀하고 잎의 선이 아름다워 시원하면서도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억새 도넛라이트
잎의 무늬 뿐만 아니라 초경자체가 매우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고급조경에 잘 어울리는 소재



무늬억새
무늬가 선명하고 아름다운 대형종으로 군식하거나 독립의 볼륨있는 조경이 가능하다.



억새 파랑치
70~100cm의 정도 자라는 블루색의 가는잎을 가진 억새로 많은 꽃대를 올리며 아름다운 블루의 선이 멋스러움을 연출한다.



억새 호피
가로형의 피를 무늬로 갖는 억새로 일반 억새와 비교하여 대가 더 굵아서는 것과 잎의 길이가 좀 짧아 좀 더 직선적인 느낌을 준다.



억새 리틀스피클릿
키가 작은 호피무늬억새로 120~150cm정도 자란다. 잎이 가늘고 가로형의 피를 무늬로 갖고 있고 그라스현을 만들 때 중간크기의 위치에 배치할 때 유용하다.

형태, 생태적 특성

억새꽃은 9월에 피며 보통 은빛이나 흰색을 띠며 가끔 얼룩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꽃의 색깔은 억새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억새의 꽃말은 '진절, 세력, 활력'이다. 억새 종류들은 주로 초지, 숲의 가장자리, 시냇가, 경사지 또는 해안가 등에서 주로 자생하며, 나무가 우거진 그늘이진 숲 속에서는 드물게 자란다. 보래밭이나 암석지대의 건조한 곳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주로 축축하고 비옥한 환경을 더욱 선호한다. 물억새의 경우는 비교적 깊게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지하경이 발달하여 퍼져 자라지만 그 외 대부분의 종들은 줄기가 뻗뻗하게 모여 자라 덩어리진 포기가 된다. 일부 상록성도 있으나 대부분 겨울에 잎과 줄기가 말라 지상부가 고사하며 잎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앙맥이 뚜렷하고 길게 자란 줄기 끝에 발달하는 화서는 사방으로 부채처럼 퍼지는 깃털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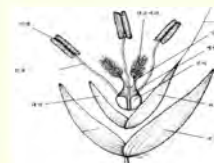
사방으로 퍼지는 수염뿌리는 철사처럼 튼튼하며 흠속에 단단히 박혀서 물가나 경사지 등의 토양을 고착시키는 기능이 뛰어나다. 꽃은 주로 8~9월에 피며 깃털모양의 화서는 직립해서 자란 후 그대로 유지되거나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옆으로 퍼지며 때로는 곧바로 늘어지기도 한다. 화색은 백색에 가까운 옅은 은색에서 짙은 자주색까지 개체에 따라 다르다. 씨앗이 빠져나간 이삭은 잎과 자루가 말라버린 자루까지 남아있다.

벼과(Family Gramineae)의 억새속(Genus Miscanthus)은 태평양의 섬 및 아프리카 남동부의 일부 지역과 주로 아시아의 열대에서 온대지역까지 약 14여 종이 분포하는 속근초이다. 아직은 분류학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새로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종들과 함께 재정리가 되면 그 종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리 및 재배방법

번식방법

일반 억새는 주로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 대량증식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무늬종 등 고급품종 등은 종자가 잘 맺히지 않거나 그 종자를 뿌려도 원래의 품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주를 해야만 한다. 분주는 적당한 크기로 새순이 나기 전 이른봄 또는 늦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



▲ 억새의 꽃 기관 명칭



▲ 그다지 크지 않은 억새 포기는 이와 같이 단순한 모종심으로도 분주할 수 있다.



▲ 뿌리떨이 잘 발달한 억새의 뿌리, 포기의 끝부분에 새로 나온 어린 줄기를 관찰할 수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맑고 아름다운 이색 금계국

에기노랑금계국



1. 5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개화
2. 생육이 강건하고 생장이 빠르다
3. 도로변, 식물원, 골프장 등 어디에도 군식 또는 혼식시 잘 어울리는 소재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31)634-0326~8

나왔다! 축제용 4계절 혼합종!

전천후 축제용 페스티벌혼합종시리즈

계절용 페스티벌 '스프링', '썸머', '스카이' 4가지 색상을 이용한 페스티벌 '화이트', '핑크', '레드', '블루' 키가 작은 페스티벌 '와성'



구입문의 : 031)634-0326~8

관수자재 소개



화단을 만들거나 정원을 꾸미기 위해 아름다운 꽃을 심었을때 제일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물주기 즉 관수 인 것이다.

식물을 이식하고 곧바로 물을 주는 것은 뿌리분과 흙을 밀착시켜(수목,초화공통) 새뿌리가 빨리 내리게 하고 공극으로 바람이 들어가 건조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수이다. 그후 적절한 관수는 식물의 생육을 좋게하고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관수는 봄, 여름, 가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건조지나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질의 흙에서는 겨울에도 관수가 중요하다. 겨울에 물을 주었을때 식물이 얼어 죽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생길수 있지만 오히려 물이 있는 것이 온도가 덜 내려간다. 또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어 적당한 관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식 관수장치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꽃의 벽화수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점적관수에 대해 알아 보 고자 한다.

인공 토양이 아닌 일반 흙에는 잔디를 제외하고는 바로 관수 라인을 설치 하는 경우는 크게 없다. 관공서에서 주로 하는 교통신이나 보도블록 위의 화단조성은 손관수로 많이 하기때문에 관수장치를 따로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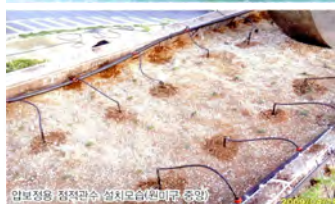
간혹 잦은 자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불통을 매설 혹은 설치하고 점적관수로 관수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경우 가로빈 화단조성시 사용하는 경우이다. 차를 타고 길을 가다보면 다리의 난간이나 가로등 기둥 등에 화분에 식재되었는 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곳은 수량이 많이 일일이 손관수가 힘들기 때문에 점적관수로 관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꽃'의 경우 벽화수에 주로 관수자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벽화수를 만들면서 계속 고민을 해오던 것이 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점적관수이다. 손관수시 물의 손실이 많고 벽화수 특성상 용벽 등에 많이 시공되는 관계로 높이 3~5m까지 높아지므로 손관수 로시는 불가능 하다.

점적관수의 장점은 물의 효율적 사용이다. 한번에 물을 쏟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방울방울 떨어져 옆으로 흘러 빠져 버리는 경우를 막을수 있고 정밀 타이머의 설치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만큼의 물을 줄 수 있다.

또한 일정한 배분율을 적용해서 설치하면 벽화수에 관수를 균일하고 일정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버려지는 물의 양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다.

정리하자면 면적이 넓거나 높아 손관수가 힘들고,



주변의 도로나 사람의 통행이 많아 스프링클러등의 사용이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점적 관수의 설치를 권하고 싶다.

점적관수란?

점적이란 물방울을 일컫는다. 파이프나 호스로 물을 끌어올려 호르도록 한 뒤, 정밀한 양의 물과 양분을 직접 작물의 뿌리에 한 방울씩 공급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점적기를 이용해 물을 공급하는 까닭으로 점적관수(點滴灌漑水)농법이라고도 한다. 적은 수량으로 관수가 가능해 물과 인력이 절약되고, 적절한 공기들 유지해 작물 생육을 촉진하며, 토양의 과도한 습도를 방지해 병해도 줄일 수 있다. 또 점적호스를 통해 비료를 공급할 수 있고, 작물의 품질향상으로 수확량을 높일 수도 있어 새로운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점적농법이 행해지고 있다.

관수방식의 선택

관수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① 대상으로 하는 작물의 특성이나 재배방식, 멀칭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균일하게 관수할 수 있는 것
- ② 수원이 급수량(단위시간당 보급량)에 적용하는 방식일 것
- ③ 시설비가 저렴하고 고장발생이 적은 것
- ④ 일상의 관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⑤ 사용이 간단하고 가능한 노력이나 신경쓰는 일이 없을 것
- ⑥ 작물에 따라서는 시비, 병해 등의 목적에도 사용될 것

여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붓들레야

현재 관목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다.

화목류 중엔 대표적인 철쭉으로부터 봄을 알리는 개나리, 조팝, 박태기나무, 명자나무 등 많은 품목이 존재하며 공원, 도로주변, 건물주변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관목성 화목류는 땃강 나무, 산수국들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6월 사이에 꽃을 피운다. 그외 생울타리용으로 주목, 회양목, 쥐똥나무 등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신소재는 붓들레야 인데 마진과의 식물로 중국, 일본등지에서 자생하는 품종이다. 한국에 들어 온지는 오래 되었지만 아직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소개한다.

붓들레야의 또다른 이름은 썸머아일라리아 부르는데 꽃의 생김새나 진한 향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름에 꽃이 한창이라는 점이다. 개화기간이 6~9월로 관목성 화목류로는 최장기 개화한다. 내한성이 강해 우리나라 전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며 꽃이 많아 나비가 많이 모이는 꽃으로 유명하다.

붓들레야의 장점은 무엇보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 개화 하는데 있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대부분의 관목성 화목류가 봄철 개화가 집중되어



있어 여름이후로 꽃을 보기가 힘들다. 물론 교목성의 큰 나무들은 여름철 많은 꽃을 피워 주지만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여 사람이 인식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붓들레야는 1~3m의 키로 철쭉이나 생울타리용 관목의 뒷면에 적용하거나, 전정해서 키의 조정도 가능하므로 앞쪽 식재도 가능한 종이다. 또 뿌리가 튼튼하고 양지면 어느곳에서나 잘자라 사면 혹은 건물의 앞에 차폐용으로도 사용해도 좋다.

우리꽃에서는 야생화와 함께 뒷면 식재나 돌출, 펜스나 벽의 앞으로 적용하여 좋은 효과를 얻었다. 유럽, 일본등 화훼의 선진국에서도 일반 야생화나 그라스와 같이 심거나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도 많이 활용하는 종이다.

블루에서 화이트 까지 다양한 꽃의 색은 이 품종의 적용폭을 더욱 넓혀 주는것같다. 미국적이면서 강건하여 여러 조성현장에 적용이 기대되는 품종이다.

우리 시터가든

보도블록위에도, 계단에도,
교통상 안전지대에도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한 화분
1회 관수만으로 2개월은 거뜬한
신개념의 화단형 화분 시스템입니다.

축제, 행사 디스플레이의 관념을 갠 새로운 조정자재
신개념 경관, 화단형 화분시스템, 원터치형 화분! "시터가든"



실용신안 출원 제20-2009-2352호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31)634-0326~8



지난 5월 19일에서 23일까지 영국 첼시에서 1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가드닝 박람회 '첼시 플라워 쇼'가 열렸다. 이 행사는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왕립원예학회) 주관 하에 해마다 5월에 5일간에 걸쳐 열린다.

온화되어 있고, 길의 반대편 뒤편으로 대부분 정원을 갖고 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경제적, 정신적 풍요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집의 매매시세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에게 꽃이나 화초를 가꾸고 선물하는 것은 특별하기보다 일상적인 일이다. 또한 관련 산업이 매우 발달했는데, 그중 으뜸은 바로 암스테르담국제원예박람회에 함께 '첼시 플라워 쇼Chelsea Flower Show'로 꼽힌다. 올해로 85회째를 맞은 이 박람회는 가든 디자이너, 시공자, 가드너 뿐만 아니라 축제를 감상하는 모든 이에게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 불리는 잔치이다.

런던의 왕립병원 옆 공원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수백명의 작품 출품자와 마케터들이 참여하는데, 가운데 대형 천막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정원을 설치한다. 디자이너들과 디자이너들의 대형 스펀서 그리고, 이러한 정원 디자인에 식물들 공급, 판매하는 업체까지 한 팀이 되어 쇼를 준비한다. 50평 정도의 땅에 이상적인 정원을 꾸미는 '쇼 가든 Show Garden',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시크 가든 Chic Garden', 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시티 가든 Urban Garden', 주택의 안뜰에 어울리는 '코트야드 가든 Courtyard Garden' 등으로 나누어져 분야별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각 분야별로 골드, 실버길드, 실버, 브론즈 등의 메달을 수여하며 전체 참가작을 통틀어 '베스트 가든'을 선정하는데 그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든 설계도와 식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시공한 가든의 완성도 등으로 종합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수상하면 그야말로 원예계의 '스타'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팀들이 도전장을 내민다. 8만 ~9만 원 정도의 비싼 가격에도 몇 달 전에 이미 모든 입장권이 매진되고, 입장 인원수를 제한했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관람객이 많이 몰려 1988년부터 관람객 수를 17만 명으로 제한하였다.에도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막회장의 모든 길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또한 박람회장 안에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생중계를 하며 시시각각 현장을 주목한다. 단순히 꽃을 보기 위해 꾸며놓은 정원을 감상하려고 몰려든 사람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산업의 장, 새로 개발한 장비의 색과 향에 대해 처음 본 사람들까지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으로서 꽃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

플라워 디자인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바로 플라워디자인부스이



① ② ③ ④ ⑤
① 우수한 관리로 잘 다듬어 놓은 첼시 플라워 쇼.
② 'the best show garden' 상을 수상한 'the Daily Telegraph'.
③ 'Urban garden'상을 수상한 'Eco Chic'.
④ 다양한 벽면녹화작품. 심지에 안락한 향의 이미지로 디자인된 The Fenchurch Garden 과 The Laurent Perrier Garden.
사진출처: www.rhs.org.uk/

다. 전시를 보기 위해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입장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들과 플로리스트의 시연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 선의 요소와 색감각을 그토록 다양하고도 조화롭게 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야외 정원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공원내에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가꾸어진 것처럼 기품있고 정제된 모습이 놀랐다.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 정원에도 문화적, 환경적 영향이 반영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쇼가든에서 베스트상을 수상한 작품 또한 스웨덴의 전통 정원과 모던함을 접목시키고, 자연스런 식물 군집을 강조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Eco Chic 정원은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여져 평가받지 못한 축축하고 어둡고 좁은 공간을 매력적인 작고 안락한 정원 공간으로 변신시켜 연중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냈다.

특히 2009년 첼시 플라워쇼는 수직정원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용적 도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수상작들을 포함하여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각기 다른 건물의 벽면녹화작품을 선보였다. Eco Chic정원처럼 빌딩숲 속에서 초록공간을 창출해낸 정원, 정원의 심미적인 기능을 극대화시킨 The daily telegraph, 그리고 실용적인 여러 디자인들을 포함하여 기존 수평의 정원에서 수직면의 정원디자이너가 다양하게 연출되어 선보였다.

신 품종 전시

The Great Pavilion은 전세계에서 온 품종회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품종을 선보이는 곳이다. 한 종류라도 그 안에 다양한 품종들을 전시하여 꽃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코너이다.

쉬는 공간

전시하는 곳이 너무 넓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련한 휴게시설은 자연과 함께 쉬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파빌리온이 설치되어 관람자들의 눈뿐만 아니라 귀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

지친 다리를 쉬게하고 피곤함을 달래줄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마련되었고, 주변에는 원예용품들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코너도 질서정연하게 마련되었다. 모종삽에서부터 원예용 장갑, 펜트까지 원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울창하게 자란 포플러 나무길을 따라 출처가 있는 삽들이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논스탑 쇼룸으로 평소에도 필요했던 원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자연에 대한 고찰

첼시 플라워 쇼는 단지 흥미로운 정원들을 둘러보는 눈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감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사람들의 초록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경에의 눈높이 또한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강수량변동, 온도상승, 계절간극의 변화 등이 가드닝과 화훼원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인 위기에서 도시의 수직공간의 녹화가 가지는 큰 힘과 가능성을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참가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의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첼시플라워쇼는 새로운 정원 디자인을 펼쳐 보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열악해져가는 자연 환경 위기에 대한 대처이자, 가능성을 제한하며, 우리의 정원 문화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하는 세계인의 잔치가 아닌가 싶다. 🌿

영국의 가장 향기로운 5일,

첼시 꽃 박람회

우리꽃 본사 사무실 이전

그 동안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이전에 연구소, 농장이 소재하는 시스템에서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화된 인력양성과 고객을 위한 질높은 서비스 창출을 위해 본사를 이전으로 옮겨 본사, 연구소, 농장이 일원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꽃은 야생화 및 녹화용 종묘 전문회사로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자세로 고객의 마음과 함께하고 더 도약하는 우리꽃이 되기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이전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연락처 TEL 031.634.7990 / 031.634.0326-8 FAX 031.634.7991

하계 워크샵

해남에서 7월16~17일 우리꽃 정기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첫날은 신년 워크샵에서 각 부서별로 세웠던 2009년 계획을 토대로 상반기기를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발표된 계획을 토대로 새롭게 하반기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날은 완도에서 신상남 시를 즐기며 전직원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6회 우리조경인상

우리조경인상이 올해로 제 6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량의 종자와 묘종, 벽화수를 현장에 잘 적용하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 6회 조경인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에게는 중국의 조경현장, 식물원, 백두산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객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추천접수 8월 15일 심사 8월 20일
발표 개별통보후 9월10,9월10일 게재 시상 8월말~9월초

제 4회 우리꽃 축제 - 가을품평회

올해로 4회를 맞는 우리꽃 축제인 품평회가 9월중(날짜미정) 이천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숙근지파식물과 새롭게 선보이거나 앞으로 선보일 신품종을 소개하고 또한 수직정원을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 특수녹화공법으로 고객들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는 벽화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조록 조경관련업체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식물들을 조경 식재지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조경 식물군의 다양한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4 수생식물

많은 수생식물은 정원에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자연적으로 생긴 수변 지형에 생육한다. 크고 작은 연못이나 인공 조성하거나 저질로 생긴 웅덩이 또는 하천 등 조건이 매우 다르고 다양한 길이의 물에서도 수생식물, 곤충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수생식물이란?

수생식물이란 물 속이나 표면 위에서 생장하는 식물을 말한다. 생장 환경은 매우 독특하지만, 지구상의 다른 식물과 크게 나누어 분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1300종에 달하는 수생식물은 65과로 나누어진다. 육상식물이던, 수생식물이던, 같은 구조와 형태,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육상식물과 수생식물의 다른 점은 물에서의 적응력이다.

이러한 적응 정도는 물에서의 생장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부들과 같이 부분적으로 잠기는 것/ 수초처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 물 밑의 토양에 뿌리를 부착하고 물에 잎이 떠 있는 것/ 물 속에 뿌리가 떠 있으면서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등의 타입이 있다. 잘 자라는 물의 깊이에 따라 여러 식물 군으로 나뉜다. 길이는 식물 주변의 토양 표면부터 물의 표면까지를 측정한다.

대부분의 수생식물은 매력적인 잎과 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상 생태계의 특성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무수히 많은 미생물, 곤충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조류의 발생을 조절한다. 건강한 수생태계는 식물의 종 다양성이 적당히 확보되고 식물이 안정적으로 정착했을 때 유지될 수 있다.

생태적 기능

Lagarosiphon major, Myriophyllum과 같은 침수 식물은 빨리 자라며 줄기가 유연하다. 주로 죽은 잎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영양염류를 물에서 흡수하고,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산소를 발생시킨다. 물에서 줄이들은 영양염류는 조류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생태계에 산소가 풍부하면, 연못 내의 동물군이 유지된다. 식물 자체는 물고기들에게는 소중한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깊은 물의 수련과 같은 잠수 식물은 뿌리 깊이가 90cm에 달하지만, 잎과 꽃은 표면 위로 나온다. 잎에 의해 생기는 그들은 물 속 광도를 줄여 조류를 억제한다. Azolla filiculoides와 같은 부유식물은 작은 잎과 물에서 영양염류를 흡수하는 떠있는 뿌리구조를 가진다. 여름에 빠르게 번식하여, 밀도가 높은 개체군을 형성한다.

이상적으로 50~70%의 수표면이 부엽식물과 부유식물의 잎으로 덮여 있으면, 연못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70% 이상이 덮여 있으면 물 속으로 침투하는 광도가 너무 줄어들어 침수식물들이 살 수 없어진다.



얕은 물과 bog 식물(bog plants)



수생 식물은 수변 토양에서부터 30~45cm 길이의 물에서 까지 견딜 수 있다. 수생식물 중에 가장 종류가 많다. 야생동물이 드나드는 연못이나 계류와 같은 자연형 연못을 조성할 때, 인공적인 틀을 감춰주는데 효율적일 뿐 아니라, 새와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서식처를 제공한다. bog식물은 물이 토양 표면 위로 차오르지 않아도, 토양이 침수되어 있는 조건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식물을 일컫는다. bog식물들은 수생식물과 단순히 수분을 선호하는 식물의 경계에 있다. 수면에 살지만 침수되어 있는 상황에는 내성이 없어 뿌리주변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식물들 모두 bog 식물로 분류하였다.

수생 식물은 수변 토양에서부터 30~45cm 길이의 물에서 까지 견딜 수 있다. 수생식물 중에 가장 종류가 많다. 야생동물이 드나드는 연못이나 계류와 같은 자연형 연못을 조성할 때, 인공적인 틀을 감춰주는데 효율적일 뿐 아니라, 새와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서식처를 제공한다. bog식물은 물이 토양 표면 위로 차오르지 않아도, 토양이 침수되어 있는 조건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식물을 일컫는다. bog식물들은 수생식물과 단순히 수분을 선호하는 식물의 경계에 있다. 수면에 살지만 침수되어 있는 상황에는 내성이 없어 뿌리주변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식물들 모두 bog 식물로 분류하였다.

물에서의 적응력

수생식물의 잎의 적응력 육상식물의 잎은 두가지 타입의 표면이 있다. 윗면은 왁스나 큐티클층으로 덮이며, 아랫면은 호흡을 위한 기공이 있는 것. 이러한 호흡구조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식물 안으로 받아들이고, 낮 동안 양분을 만들 광합성 기작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기작이 작동된다. 밤에는 이러한 과정이 거꾸로 이루어지며 산소는 식물체내로 들어오며 이산화탄소가 식물체 밖으로 나간다. 육상식물의 잎과 부엽식물의 잎 그리고 수변식물의 잎은 이와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대부분 부엽 식물은 생장을 토양(물밑 또는 침

수면)에서 시작한다.

어떤 새로 생긴 식물의 잎은 반드시 물에서의 생장시기를 거친다. 그러므로 물 속에서 저장할 수 있는 산소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육상식물처럼 호흡을 할 때까지 저장한 산소를 사용하도록 적응되어 있을 것이다.

수생식물의 부엽은 독특한 적응력을 보여준다. 물 표면에 떠있는 잎은 윗면은 대기에 노출되고 아랫면은 물과 맞닿는다. 이러한 잎은 부드러운 가장자리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모양은 바람과 물결에 최대한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거칠고 가시질의 질감은 또한 손상을 방지한다. 무겁고 왁스질의 큐티클 표면을 물이 끓어 떨어지고, 잎이 가라앉는 것을 막는다. 부엽은 윗면에 기공이 있으며, 큰 공기층이 있어 물에 떠 있도록 한다.

줄기 육상식물은 잎의 전면에 기공이 닿지만, 부엽식물의 잎은 단면만 기공이 닿는다. 수생식물의 줄기는 물 표면보다 더 깊게 뻗는다. 이것은 물의 수위가 높고, 낮게 변함에 따라 적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잎이 물에 가라앉으면, 줄기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잎이 표면으로 상승하도록 한다.

긴 줄기는 이 외에 한 개체에서 많은 잎들이 물 표면으로 뻗어 나와 태양과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수환경에서의 식물 영양분



광합성에 의한 산소, 이산화탄소 이외에 식물체의 생장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 다량원소와 미량원소로 나뉜다. 육상식물의 경우 이러한 영양소는 식물에 생장하고 있는 토양에서 공급받거나 비료에 의해 강화된다. 자연 연못 또는 호수에서는 식물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나 인공수생태계에는 규칙적으로 필요한 원소 등을 인위적으로 공급해야만 건강한 연못을 유지할 수 있다.

자원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과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모집인원	학력	자격요건
생산관리	1명	고졸이상	원예, 조경관련 전공자 우대
품질연구	1명	대졸이상	생물학과, 원예학과 전공자(조직배양 가능자, 경력자 우대)

• 역량 있고 도전정신이 강한 인재를 가족으로 모집한다.

• 우리꽃의 건강한 식물의 생리, 생리를 배우고 자신의 창조물에 녹여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 문의사항 / 담당자 : 우리꽃 관리부 김기환 연락처 : 031-634-0326~8 (FAX, 031- 634-7991) 접수 : E-mail 접수 (yonseiniuv@naver.com)

도시미관의 새로운 장

원시스템 녹화공법 '벽화수'

'벽화수'

벽화수는 도로분리대, 방음벽, 고가도로의 난간, 교각, 학교의 담장, 건물의 벽체뿐 아니라 건물의 곡면이나 기둥까지 도시의 어떠한 구조물이라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1회 설치로 연중, 매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년생으로의 교체도 가능합니다.

벽화수 특징

호안,법면,벽면,꽃담,꽃벽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도 한번에 해결 됩니다.

콘크리트벽, 담장, 방음벽, 중앙분리대, 경계펜스 등에도...

타일처럼 붙여만 주면 OK

지붕, 옥상, 하천사면, 방조제 사면, 암절개지에도..

매트처럼 깔아만 주면 OK

원하는 구조물, 원하는 문양이 있습니까?

그림 그리듯 쓰고 꽃아만 주면 OK



벽화수 장단점

- 쉬운설치!!

벽면의 타일처럼 붙여만 주세요!

: 타일처럼 벽면에 부착만으로도 벽면 녹화시키는 간단한 시공방법

- 쉬운 관리!!

물, 비배(양분)관리 NO! 잡초관리 NO!

: 자동 타이머가 결합된 관수시스템 적용으로 물관리는 물론 비료 관리까지 한번에 해결 됩니다.

- 빠르고 다양한 효과!!

붙이는 방식으로 설치!

: 붙이는 방식으로 빠르게 녹화를 할수 있으며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